



## ◆ [Focus]

- (바이오) 미국, 바이오 안보전략 구축으로 미래 전염병 대비 강화

## ◆ [What's News]

- (무역통상) 레임덕 세션 내 무역 법안 처리 동향 및 전망
- (배터리) 중국 배터리 기업 CATL, 북미 공장 신설 계획 재검토
- (무역통상) 미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 3차 각료회의 일정 발표
- (친환경) 2022년 탄소 배출 증가량 감소 예상
- (친환경) 환경국(EPA),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 대한 의견 수렴 발표

## FOCUS

### 1. [바이오] 미국, 바이오 안보전략 구축으로 미래 전염병 대비 강화

#### □ 미국의 국가안보각서 및 바이오 안보전략 개요

-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염병 및 생물학 위협 대응과 전염병 대비 강화, 세계 보건 안보 달성을 위한 국가안보각서(NSM-15)에 서명하고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바이오안보전략(NBS)과 이행계획 발표(10.18)
  - \* National Biodefense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 (Oct. 2022)
- 백악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전염병이 향후 25년 내 재발할 수 있다며 “재앙과도 같은 전 세계적 생물학적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할 핵심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.”고 배경 설명
- 백악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래의 전염병 대유행과 여러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며, 미 의회에 5년간 880억 달러의 예산 승인을 요청
- 이번 대책에는 국무부, 재무부, 국방부, 보건부, 상무부 등 20개 이상의 연방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감지, 전염병 및 생물학 사고 예방, 전염병 영향 감소를 목표로 함.

- 특히, 전염병 및 생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기관 전반에 걸쳐 바이오 안보구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행 조직을 구축 예정

**<국가 안보 각서 15호 주요 내용>**

- ① 정책 조정·감독 기능의 중앙(백악관) 집중화로 전략 효율성 제고
- ② 부서·기관 연간 예산에서 면역강화 전략 실행의 우선순위 지정
- ③ 생물 위협 진화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, 정보기관은 잠재·의도적인 생물 위협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하도록 지시
- ④ 연방정부가 연례 면역강화 비상 대응 계획을 실행, 추진 계획 점검 및 정기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지시

[자료: 백악관 보도자료(10.18)]

**□ 미국 바이오 안보전략 및 이행계획 주요 내용**

○ 전염병 등 발병 대비 목적 바이오 안보전략(NBS) 및 이행계획 발표

-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전염병 사례로 최근 코로나19를 언급하고 국가 안보와 세계 안정의 위협요소로 지목하며 경각심 환기
- 코로나19 외에도 원숭이 두창, 소아마비, 에볼라, 조류 독감 등 여러 전염 질병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, 생물학적 전염병의 무기화 위협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
- 바이오 안보전략 목표에는 팬데믹이나 생물학적 사건 발생 이후 지역 사회와 경제 및 환경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, 특히 50개주 전역에서 의료종사자 간부 모집 및 훈련, 역량 강화 등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전략도 포함

## <국가 바이오 안보전략 주요 내용>

### ①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탐지

-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통해 전염병 예방·탐지·대응 능력 강화 등
  - \* 미국은 최소 50개국을 지원하는 한편, 다른 국가와 함께 WHO 투자 강화
- 사고 예방 및 생물안보 국제 협약 수립을 통한 실험실 생물보안 강화
- 생물무기 협약(BWC)에 따른 국제규범 강화로 생물무기 사용·개발 억제

### ② 대유행 및 기타 생물학적 사건 대비

- (1) 12시간 이내 신규 전염병 테스트, (2) 1주일 내 진단 테스트 기반 마련, (3) 90일 이내 신속 진단 테스트 개발 역량 확보
- (1) 100일 이내 백신 개발, (2) 130일 내 백신 제조, (3) 200일 내 고위험 세계 인구를 위한 백신 공급 역량 확보
- 90일 이내 기존 약물용도 변경과 180일 이내 신규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발 및 검증 단계 가속화

### ③ 발병 시 신속한 대응

- 팬데믹 징후 발견 기준 14일 내로 진단, 백신, 치료제를 위한 임상 시험 인프라 활성화 목표

### ④ 팬데믹 및 생물학적 사고 복구

- 주, 지방, 부족 및 준 주정부와 장기적이고 공평한 복구 전략 개발

[자료: 백악관 팩트시트(10.18)]

## □ 현지 반응 및 전망

- 지난 9월 미국 바이오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이어 미국 내 생명공학 및 바이오산업 강화 노력 계속
  - 폴리티코는 이번 계획이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제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의료기기 및 약물 테스트 개발 기간을 포함해 수년의 시간과 의회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
    - \* 바이든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5년 간 880억 달러 의회에 요청
  - 블룸버그는 미국 보건부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지

만, 생물학적 위협 대처를 위한 국토안보부의 책임이 높아질 것이  
라 언급하며 백악관 중심의 연방기관 공동 대응 체계에 주목

-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진정세에도 미국 백신 제조사들이 여전히  
더 많은 주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더 적극적인  
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도

\* 자료 : 백악관 보도자료 및 팩트시트(10.18), 폴리τικο, 블룸버그 등 현지언론 보도자료

## □ [무역통상] 레임덕 세션 내 무역 법안 처리 동향 및 전망

- 의원들은 레임덕 세션\* 내 일반특혜관세제도(GSP) 등 주요 무역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 중

\*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 공식 출범 이전까지 소집되는 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

- GSP는 현재 2건이 계류 중이며, (1) 이전 법안을 계승해 혜택 미제공분을 환급해주는 법안과 (2) 민주당이 지지하는 노동·환경 기준이 강화된 법안이 존재
-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무역조정지원제도(TAA)와 무역협상권한 (TPA)이 포함된 법안만을 고려할 것으로 주장하며 대립
- 다만, 현지 언론은 양당 모두 GSP 합의 지연이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, 관련된 입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

\* 자료 : 폴리τικο, 인사이드트레이드(10.24)

## □ [배터리] 중국 배터리 기업 CATL, 북미 공장 신설 계획 재검토

- CATL은 IRA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정책에 대응해 북미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을 재검토 중

- 현지 언론은 IRA의 전기차 배터리 조항 내 '중국·러시아産 부품 사용 시 보조금\* 지급 제외' 항목을 투자 재검토의 배경으로 분석

\* '24년까지 배터리 소재용 광물의 50%, '26년까지 80%가 미국 및 美 동맹국産 사용

- CATL은 잠재 고객사 수요 증가를 전망해 북미 배터리 공장('26년 완공 목표) 부지를 물색 중이었으나, 계획 연기를 발표하며 이는 IRA로 인한 외국 기업의 첫 투자 재검토 사례로 고려됨.
-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의 70%를 차지하고, 코발트·망간 등의 희귀광물 제련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, IRA 조건 달성과 안정된 공급망 확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

\* 자료 : 로이터(10.21), 인사이드트레이드(10.21)

## □ [무역통상] 미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 3차 각료회의 일정 발표

- TTC 3차 각료회의는 12월 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
  - 미·EU는 월요일(10.24) 화상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는 3차 회의 주요 의제인 인공지능 표준, 수출통제안, 통신과 관련해 논의
  - 회의 중 EU 측 관료는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TTC의 목표 중 하나인 '신규 무역 장벽 생성 회피'에 어긋난다고 주장
  - 현지 언론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 관련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, IRA가 12월 회의 때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며, 이는 미국 관료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보도

\* 자료 : 폴리τικο(10.24)

## □ [친환경] 2022년 탄소 배출 증가량 감소 예상

- 더 힐(The Hill), “올해 탄소 배출 증가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”
  - 더 힐은 국제에너지기구(IEA)의 보고서를 인용, '22년 탄소 배출 증가량이 '21년 탄소 배출 증가량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보도
  - 보고서는 올해 전체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3억 톤 늘어난 338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, 탄소 배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'20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
  - \*2021년 탄소 배출량은 2020년 대비 20억 톤의 배출량 증가를 기록
  - 올해 러·우 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전기차·재생 에너지 기술 발달로 인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가 없었다면 세계 탄소 배출량은 '21년보다 10억 톤 늘었을 것으로 분석
  - 미국의 친환경 기술 투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불확실성과 일부 국가들의 석탄 발전 의존도 상승으로 내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\* 자료 : 더 힐(10.19), 국제에너지기구(10.19)

## □ [친환경] 환경국(EPA),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 대한 의견 수렴 발표

- EPA는 '온실가스 감축 기금'의 구체적인 설계와 이행에 대한 의견 수렴 일정 발표
  - '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정된 '대기오염방지법'(Clean Air Act)은 '온실가스 감축 기금'을 통해 27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예정
  - 지원금은 △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·기술 지원에 120억 달러, △저소득층 거주용 옥상에 탄소 배출 중립 기계 배치에 70억 달러, △저소득과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 기술적 지원에 80억 달러 배정
  - EPA는 10월 18~19일 환경금융자문위원회(EFAB)의 비용 절감과 투자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이후 11월 1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지방 정부와 백악관 자문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
  - 마이클 레건(Michael Regan) 환경보호국장은 '온실가스 감축 기금'이 미국의 21세기 친환경 기술 확보 입지 향상을 위한 기회라고 호평

\* 자료 : 美 환경국(10.21)

## Notice

### □ 주요 경제통상 일정

10.25(화)	美 소비자신뢰지수 (Consumer Confidence Index)
10.26(수)	美 신규 주택 매매량 (New Home Sales)
10.27(목)	美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 (Real Gross Domestic Product)
10.28(금)	美 9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(PCE Price Index)

### 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행사안내) 2022 국제기구 주요기업 등 청년 취업설명회(11월 3일, 워싱턴DC)
- (자료발간)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5)  
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(Fed Now) 출시 전망 및 시사점(US22-34)  
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(US22-33)  
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 \* 10월 말 공개  
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- (인터뷰) 미국 상공회의소 Charles Freeman 선임부회장 인터뷰 업로드 예정(11월 초)  
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 인터뷰 Youtube 업로드 예정(10월 30일)

